

# 논두렁 참개구리 어디로 갔나

= 한 나라의 사람(목숨)값은  
그 나라의 per capita GNP에 정비례 =

차 승 만

나무와 공장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고속도로와 살림살이가 즉즉 뻗어 나가는 고국 산천을 보고 감개무량 하였다. 7년전에 귀국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 여러사람들이 “미국은 얼마나 살기 좋으나”고 묻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지요” 하는 것이 인삿말로 되어 버린 느낌을 주어서 더욱 흐뭇하였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다.

수출산업과 방위산업의 발전, 방대한 규모의 조림 치수사업 가는데마다 눈에 띄는 건축사업, 팔꿈한 옷차림으로 뛰어 놀고 있는 농촌 어린이들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쓴 농부가 지게를 지는데신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들은 6.25 난리를 겪고 져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다가 고국 산천을 등지고 허용된 44파운드도 채우지 못한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에 왔던 나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광경들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못마땅하여서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졌다는 말인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눈에 띄었던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무의식 중에 기대 하였던 것이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바쁜 여정에서 잠깐 틈을 내서 아버지 산소와 장인산소에 성묘갔을 때 이삭이 탁 피기 시작한 통일벼가 들어찬 논 옆으로 지나갔다. 뒤에 생각해보니 무엇을 못 본 것 같다. 늦여름 큰 비가 내린 다음에 논 두렁을 걸느라던 큼직한 참개구리 등이 놀라 여기저기 뛰어 들어 갈뻔데 한마리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산속 개울에 사는 작은 산개구리(Rana Nigromaculata)

들은 많이 보았는데 눈에 사는 참개구리는 못 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잠기 좋아하던 그 큼직한 참개구리 밤에 잠 못자게 시끄럽게 울던 그 개구리들이 혹시나 농약에 멸종된 것이나 아닌지?

내가 못 본 것은 참개구리만이 아니다. 나라살림이 풍부해지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응당 있을법한 생명과학의 뒷받침의 조직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석연치 않았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식생활이 커다란 변천과정을 겪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동네 구멍가게를 엮드려다 보면 가공식품과 음료수의 양과 종류가 많고 값도 싸서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약방에 들러보면 국산 약품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고 돈만내면 미국에서는 처방 없이는 못사는 아무 약이라도 살수 있어서 이것도 편리하다. 그러나 이들 식품 음료수 약품들이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것들을 먹고 귀신도 모르게 죽는 사람은 없는지? 하기야 귀신이 현대 과학 기술을 배운 일이 없을 것이니 과학기술 덕분에 죽는 사람을 귀신인들 어찌 알수 있으랴 하물며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는 물어 무엇하리오.

종합학술대회 생명과학 및 환경공학 분야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어느 강연을 막론하고 청중이 60명이하로 내려간 일은 거이 없다고 기억한다. 공식적 프로그램외에도 한국 생화학회 고려 인삼학회 등에서는 재미측 연사들을 초청 별도로 강연회를 가졌는데 참석 인원은 100-120명 정도였다. 개인적으로 초대받아 각 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진 재미과학회원도 많았다.

이렇게 실제적인 효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측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번 학술 대회에 생명과학분과 세손은 원래 국내측 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재미과학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하기가 생명과학자들이 지금 당장 한국의 당면 문제인 수출증대에 직접 크게 이바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생명과학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해도 무리는 아니다. 오히려 환경문제 또는 안전성 문제등을 들고 나오면 수출 산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 과학정책 수립에 발언권이 있음직한 고위층 선배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여 보면 우리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말할 사람과 돈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국내생명 과학자들은 “우리의 주장은 먹여 들지 않는다(요새 유행어)” “말해 봤자 소용 없다” 등의 패배 풍조를 풍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다가 나는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였다. 즉 “한나라의 사람(목숨) 값은 그 나라의 per capita GNP에 정비례한다.”라는 것이다. 한국은 각종 산업을 개발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부강하게 되려는 목적은 국민 전체가 잘 살아 보겠다고 피땀을 흘려서 일을 하였는데 부자는 되었어도 도리혀 잘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민족자본 축적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 저임금 정책을 감수하고 있는 허다한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더 오랫동안 거룩한 희생 정신을 기대할 수 있는가? 눈에 띄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공해 문제(예를 들면 서울 공기는 눈에 보인다), 가공 식품에의 의존도가 높아 짐으로써 야기되는 영양실조 및 유해식품에 의한 피해 가능성, 국토 환경보존 및 관리, 인구문제(한정된 국토에서 계속 증가하는 인구는 시한폭탄이라고 봄) 농수산업의 개발, 보건 관리, 의료혜택의 질적 양적개선등 국민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현대 과학지식을 갖춘 생명과학자들의 역할이 커야겠다고 외치면 반드시 가진인수격이라고 웃어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세

계 중진국가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 불원간에 선진국가 대열의 탈락이라도 차지하겠끔 되었다고 한다. 대견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관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결핵환자가 아직도 우글우글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뱃속에서는 회충이나 십이지장충이 꿈틀거리고 간과 폐에는 디스토마 벌레가 깨알같이 박혀 있어도 돈뎌치만 내 저울수 있으면 일등국민이라고 빠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GNP에 비례해서 목숨값은 올라간다. 비싼진 목숨을 옛날 값이 쌀때처럼 마구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대학교 생물과에는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다른과에 입학이 안되는 학생이 들어가고 졸업하면 고작해야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수밖에 없던 시절은 지날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미처 중점적으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GNP가 예상대로 증가하면 국민 각개인의 목숨값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때 생명과학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이 중요한 변환점은 10년내에 올 것이다. 그때를 예비해서 생명과학자는 각자 지금부터 실력을 기르고 확고한 기반을 잡아둘 것이며 현재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차 10년 이내에 있을 생명과학분야 인원의 필요성 급증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최소한 인재 양성(질적 향상과 양의 증가)만이라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나는 본 과학회에서 생명과학분야를 대표하는 구룹평의원으로써 재미한인 생명과학자들의 과학협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느끼고 이점을 시정하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한다. 물리화학및 공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과거 오년간 조직과 사업에 막대한 성과를 올린 재미과학회에 더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참여하여서 우리민족과 국가의 발전도상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와야 할 몫을 찾고 우리 겨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구실을 하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한다.